

코로나에 지친 마음 문화유산 영상으로 힐링

문화유산채널, 담양 소쇄원·완도 여서도 등 7개 주제 44편 문화유산 영상 제작 공개
고택 바람소리·자연 새소리 등 함께 감상

화면이 펼쳐지면 가장 먼저 새소리가 들린다. 새소리는 시종일관 영상이 끝날 때까지 지속된다. 새소리는 맑고 청아하다. 자연에서 듣는 소리 못지않게 생생하다. 비록 가상의 영상을 매개로 하지만, 새소리는 자연의 원음 못지않다.

담양 소쇄원, 실감형 콘텐트로 구현된 공간임에도 대나무는 곧고 푸르다. 도열하듯 길을 따라 이어진 대나무 군락에선 선비의 굳은 절의가 느껴진다. 제월당 아래로 흐르는 계곡의 물은 마음의 때마저 씻어준다. 제월당에는 양산보의 사돈 김인후가 쓴 48 영(詠)의 시가 걸려 있다. "맑은 물가에서 거문고를 빗겨 안고"라는 표현이 500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에까지 오롯이 이어진다.

코로나 19로 지친 마음을 문화유산 영상으로 잠시나마 힐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문화유산채널이 심리 위축과 우울감을 겪는 이들을 위해 문화영상을 준비한 것. 지난 18일부터 문화유산 채널 누리집과 문화유산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되는 영상은 '봄, 자연과 함께 하는 영상여행 특집프로그램'이 주제다.

고택의 바람소리, 해변의 바람소리 등을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함께 감상할 수 있으며 지난 6일부터 공개 중인 '문화유산 ASMR영상' 이후 두 번째 기획물이다. 앞으로 한달 간 공개될 예정으로,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의 심신을 달래줄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은 봄, 자연, 여행, 실감형 콘텐트 등을 테마로 모두 7개 주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봄(4대궁궐 봄꽃 풍경시리즈, 문화유산 사계절 시리즈), 자연(이미지 문화유산, 한국의 천연기념물), 여행(한국의 정원, 섬 문화유산 기행), 실감형 콘텐트(문화유산 여행 360° VR) 등 44편이다.

이 가운데는 남도의 문화유산도 다수 포함돼 있다. 순천만 사계, 구례의 금강산인 오산 사성암, 담양 명옥헌 원림, 보길도 운선도 원림, 돌담으로 유명한 완도 여서도, 섬의 들노래 신안 장산도, 담양 소쇄원 등은 직접 현장에서



문화유산채널은 '봄, 자연과 함께하는 영상여행 특집프로그램'을 주제로 다양한 문화유산 영상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은 실감형 콘텐트로 구현된 소쇄원 영상.



영상 속 여서도 풍경

보는 것과 같은 현장감과 정취를 선사한다.

반면, 남도의 블루오션인 섬을 토대로 한 섬 문화유산기행은 청정한 바다와 섬사람들의 이색적인 문화를 엿볼 수 있다. 그 가운데 돌담으로 유명한 완도 여서도의 풍광은 압권이다. 여서도는 예로부터 바람이 유난히 많아 바람의 섬이라 일컬었다. 바람과 뿔 수 없는 자연의 사물이 바로 돌담이다. 마을을 굽이굽이 도는 돌담은 무려 2km에 달

하는데, 그 역사가 300년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곳의 돌담은 특이하다. 촘촘하거나 견고하지 않고 설핏 보기엔 어설피기도 한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삶의 지혜가 응축된 전략이라고 한다.

"여서도의 돌담은 바람의 방어막이 아니라 바람의 통로이다. 자연에 순응하는 삶. 여서도 사람들의 지혜, 뒤편은 막되 아주 막으면 뚫려서 날아가니, 돌담 구멍사이로 바람이 나뉘어 가도록 한 지혜이다."

영상에는 자연에 순응하는 법이 무엇이며 어떠한 하는지 담겨 있다. 혹여 오늘의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유행)은 인간들이 자연과 벗하지 않고 지나치게 낭비하고 훼손한 대가인지도 모른다. 일말의 깨달음도 준다.

한편 문화유산채널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3월 현재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해 미국 유튜브 본사로부터 '유튜브 크리에이터 어워드-실버 플레이 버튼'을 받는다.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감상을 투영해 공공 콘텐트로서의 경쟁력을 키웠고 이러한 점들이 호응과 연계돼 구독자 증가로 이어졌다는 방증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며칠 전 TV리모컨을 돌리다 반가운 얼굴을 만났다. 오래전 스크린에서만 봤던 할리우드 스타가 CNN 뉴스에 깜짝 등장한 것이다. 주인공은 '쫄루스', 'JFK', '어퓨갯맨' 등 수백여편의 영화와 TV드라마로 유명한 케빈 베이컨(Kevin Bacon)이었다.

그가 이날 CNN의 시청자들에게 건넨 메시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였다. '#I Stay at Home for KYRA SEDGWICK'. 스튜디오가 아닌 거실 소파에 앉아 화상으로 대신한 인터뷰에서 그는 부인인 키라 세드윅을 위해 당분간 '집콕'(집에 꼭 박힌 상태) 하겠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지루하지

신의 부모를 위해, 아들을 위해, 친구를 위해 집에 머물겠다며 화답했다. 엘튼 존은 케빈 베이컨의 지목에 곧바로 "나도 집에 있다"라는 인증샷을 올렸고, 베컴은 "VB(아내 빅토리아 베컴)와 아이들을 위해 집에 있었다"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셀럽'은 자신들의 지인 6명에게 트윗을 날리는 등 릴레이 운동을 펼치고 있다. 만약 케빈의 챌린지가 성공한다면 조만간 국내에도 국경 너머 누군가 보낸 '스테이홈' 해시태그를 받을 수도 있겠다.

최근 '코로나 19'가 대유행 하면서 전 세계가 사실상 '집콕상태'(Stay at home)에 들어갔다. 개학이 연기된 아

슬기로운 '집콕' 생활

만 꼭 필요한' 캠페인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스테이홈' 챌린지는 지난 2007년 그가 주창한 '6단계(Six Degree)' 운동에서 영감을 얻었다. 6단계 법칙에 따르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은 최대 6단계 이내에서 서로 아는 사람으로 연결돼 있다는 주장이다. 즉, 할리우드에서 마당발로 통하는 자신을 기준으로 6단계를 거치면 지구촌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6단계 자원봉사재단'을 창립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글로벌 공동체 운동을 펴고 있다. 케빈의 '#I Stay at home for' Challenge는 보름만에 2만 여 명이 동참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가 첫번째로 해시태그를 보낸 6명의 지인에는 영국의 팝스타 엘튼 존, 축구 선수 데이비드 베컴, 싱어송 라이터 데이비드 로버트 등이 들어 있다. 이들은 자

이들은 물론이거니와 자택 근무인 아빠, 엄마도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강제 집거'가 예상보다 길어지자 여기저기서 답답한 일상을 토로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미술관과 공연장이 잠정휴관에 들어가면서 삶에 활력을 주는 문화 나들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방구석 음악회'의 1열관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건 어떨까. 마친 광주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해 서울 예술의전당, 베를린 필하모니, 뉴욕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등 국내외 예술기관들이 '집콕족'들을 위해 공연실황을 무료로 제공한다. 비록 현장의 감동은 떨어지지 않지만 명품 공연을 감상하다보면 잠깐이라도 지친 마음을 위로받게 될 것이다. 지루한 집콕생활을 '슬기롭게' 보내는 것. 바이러스로 날아간,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되찾는 지름길이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이동범 수필가 에세이집 '행복은 샘물처럼' 펴내

"우곡산(愚公移山)이라 하지 않았던가?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의지나 신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결국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거슬삼아 노력하고 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미숙은 발전의 씨앗이다'란 말을 되뇌며 자강불식(自強不息)의 신념으로 줄곧 써 왔다." 우리나라로 팔순을 흔히 산수(傘壽)라 일컫는다. 그 나이가 되면 "우산을 쓰고 세상일을 피해서 살라"는 뜻이다. 이동범(80) 수필가가 산수를 맞아 첫 번째 에세이집 '행복은 샘물처럼'(비로)을 펴내 눈길을 끈다.



또한 진삼전 시인의 축하의 글과 광주수필문학회 황옥주 회장의 발문도 잔잔한 여운을 준다.

저자는 "나에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은 바로 글을 쓰는 시간이다"며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란 말과 같이 글을 쓰면서 행복과 부유함을 찾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수필가는 초등학교, 장학관, 광주교대총동문회장 등을 역임했다. 월간 문학공간 수필로 등단했으며 교육칼럼집 '교육이 미래의 희망이다'를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인터파크, 전국 청소년 독후감 대회

인터파크가 학교 도서관 지원을 위한 '제 14회 전국 청소년 독후감 대회'를 오는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응모방법은 38종의 지정도서 가운데 1권 이상을 읽고 200자 원고지 8매 내외 분량의 독후감을 오는 8월 31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수상자는 오는 9월 28일 인터파크 및 학교도서관저널 홈페이지, 청소년출판모임 카페에 공지되고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심사를 거쳐 개인우수상(38명), 최다 독후감 응모학교(4개교), 우수 독후감 선정학교(중·고등학교 각 3개교), 지도 교사상(5명) 등 5개 부문을 선정한다.

한편 지정도서 목록 및 응모양식, 자세한 참가방법은 인터파크 해당 이벤트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예회관 4월 공연·5월 일부 공연 취소

광주문예회관(관장 성현출)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에 이어 4월 공연과 5월 일부 공연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4월 2-5일 공연 예정이던 어린이 뮤지컬 '알사탕'과 4월 4일 예정된 2020 장운정 라이브 콘서트를 비롯해 가족뮤지컬 '나무인형 피노키오'(4월10-11일), 뮤지컬 '세계로명탐정대'(4월11-12일), 공연 '천원의 낭만'(4월13일), '2020 남도국악제'(4월13-15일), '크러쉬, 자이

언터 광주 공연'(4월 18일) 등이 취소됐다.

또 5월2-3일 예정된 '싱어롱 콘서트 뮤지컬 무지개 물고기'와 5월 7일 '센트럴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도 만날 수 없게 됐다.

한편 문예회관은 지난달 취소된 기획 공연을 오는 26일부터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한다. /전재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 | | | |
|---|--|--|--|
| <p>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p> <p>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 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 주문 (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p> | <p>남 문 냉 동</p> <p>나주시 이창동 풍물시장2길 5-4 저온저장고제작수리, 영업용 냉방·냉동수리 에어컨 전문설치 ☎ 061)333-2779, 010-3610-2779</p> | <p>무크 광주세정점</p> <p>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2층 258호 화사한 볼 신상품 대량인고 남·여 20~40%세일 (일부품목제외) ☎ 062)370-9258</p> | <p>천상일월태주명</p> <p>나주시 남외동33-3번지 남고문뒤편 중합, 사주, 신수, 택일 전문점 ☎ 010-2617-3635</p> |
| <p>김 동 일 쉼 프</p> <p>동구 지호로42(지산2동사무소입구마트앞) 갈비해장국, 갈비탕, 육개장, 곰창전골, 무침조림 예약주문 각종모인환영 ☎ 062)228-1975, 010-9622-8938</p> | <p>꽃젠광주센터</p> <p>동구 금남로47차과연전철역부근3번출구 거동이 불편하신분, 어깨·허리·무릎·관절이 불편하신분 꽃젠 지석 쿠션 신발 ☎ 062)232-6625, 010-3640-6625</p> | <p>대성각 중화반점</p> <p>동구 무등로306-6 (구시청뒤 도로변) 각종 전통 중화요리 전문점 전화주문시 신속배달 ☎ 062)430-5342</p> | <p>동 양 철 학 원</p> <p>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당옆길) 사주, 격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p> |
| <p>광명천막기업</p> <p>북구 천변우로 285-1(누문동) 패션어닝, 철구조물창고, 차광막, 일반포장 파라솔, 자바라천막, 차호루 ☎ 062)526-6153, 010-6646-7282</p> | <p>우리 뷔 페</p> <p>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2월17일 오픈!! 청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강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p> | <p>개성전통한방삼계탕</p> <p>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 삼계탕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 ☎ 062)383-3454, 010-2106-0424</p> | <p>자동차 밧데리 할인마트</p> <p>북구 자미로12(신안동128-7번지) 무료출장 ☎ 062)252-1119, 010-9881-2922</p> |
| <p>유가네한우곰탕 광주대인점</p> <p>동구 대인동 324-18번지 30년전통 깊고 진한 곰탕의 맛! 한우맑은곰탕, 한우사골순대국, 한우사골설렁탕 한우육수 육개장 '모든메뉴 포장가능' ☎ 062)464-1425</p> | <p>연아불교용품</p> <p>전남 나주시 영산포로261-1 (영산포구역전원) 불교용품, 무속용품 모든것 조상옷, 양초 판매 ☎ 061)334-0088</p> | <p>국제행복찾기 결혼정보</p> <p>나주시 동점문길 8(중앙동98-6)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최고의 만남을 추천합니다. ☎ 061)337-7712, 010-5288-3257</p> | <p>천 을 귀 인</p> <p>동구 필문대로 191번길 19 (산수동) 궁전타로, 인생심리상담, 사주명리학 타로 배우실분 신청하세요! ☎ 010-7186-6894</p> |
| <p>고 전 방</p> <p>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희중 ☎ 062)224-4869</p> | <p>박 당 화 랑</p> <p>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p> | <p>초 대 화 랑</p> <p>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 <p>신 신 예 술 의 집</p> <p>동구 공동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